

『탐라문견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 의미

한창훈*

국문 요약

본 논문은 18세기 정운경이 남긴 『탐라문견록』을 자료로 하여, 이 시기 제주인의 실제 체험을 통해 파악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간략한 인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운경(1699~1753)은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처음 왔다. 낯선 땅에 온 정운경은 뜻밖에 많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과 대만은 물론, 멀리 베트남까지 표류·표착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기록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탐라문견록』이다.

『탐라문견록』의 분량은 들락날락하지만, 표류 날짜, 지점, 송환 경과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보자가 기억하는 것은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한 점이 대단히 특징적이다. 국가간 외교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던 18세기 당시, 이런 표류는 민간에서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해양 활동의 증가와 어업 및 교역의 활성화로 나라마다 빈번한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표류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의 구조와 송환 과정에서 외교적 관계가 부각되었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적인 기록은 많이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 작업은 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탐라문견록』의 가치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탐라문견록』에 따르면, 당시 제주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경우는 탐험, 모험 등은 없고, 교통 혹은 장사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표류시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필담을 통해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은 한문 문화권에 속했고,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였으므로, 한문을 통한 필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송환은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보내지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 때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의 경우, 송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대만이나 류큐, 안남 등지의 낯선 풍속과 일본인들의 생활상 등 표류민들의 다양한 해외 체험 및 관찰 기록이 전해진다.

주제어: 정운경, 탐라문견록, 동아시아 인식, 한문 문화권, 해외 체험, 관찰 기록

I. 서론

본 논문은 18세기 정운경이 남긴 『탐라문견록』을 자료로 하여, 이 시기 제주인의 실제 체험을 통해 파악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간략한 인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은 2008년 한양대 정민 교수에 의하여 번역본까지 출판되었으나(정민, 2008), 본 자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본 자료는 제주학을 인문학 혹은 역사학적으로 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한다.

정운경(1699~1753)은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제주

도에 처음 왔다. 낯선 땅에 온 정윤경은 뜻밖에 많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과 대만은 물론, 멀리 베트남까지 표류·표착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외에도 한라산이나 제주 섬에 관련된 선학들의 기록을 모으고 이를 재검토 분류하고, 미진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보충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특히 굴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굴보』라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탐라문견록』이다. 여기서 해외 표류민을 인터뷰한 『탐라문견록』이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주지하다시피, 해외 지역 사람으로 제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는 『하멜 표류기』가 유명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남긴 해외 표류·표착 기록 또한 많이 전해져 온다. 대중적으로는 장한철이나 최부의 기록이 유명한 편이다. 이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윤치부(1994)에 의하면 “표류자의 표류 동기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이나 개척의 의미인 모험적 성격에 의해서라기보다도 피동적으로 표류를 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새로운 세계나 바다에 대한 동경 및 모험적 본능을 나타내는 해양관과는 대조된다”고 하였다.

윤치부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던 『탐라문견록』도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실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의 사정에 능통하지 못했던 조선 혹은 제주 사회에서 이런 표류·표착 경험은 사람들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는 점과 그 대상이 동아시아 일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II. 『탐라문견록』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

『탐라문견록』은 1687년 안남국에 표류한 조천관 주민 고상영의 표류기부터 1730년 관노 만적의 가라도 표류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14인의 표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외 표류가 13건이고, 국내 표류가 1건이다. 해외 표류는 안남국 1건, 대만이 2건, 일본이 9건, 류쿠가 1건이다. 역시 일본으로 표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분량은 들락날락하지만, 표류 날짜, 지점, 송환 경과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보자가 기억하는 것은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한 점이 대단히 특징적이다.

국가간 외교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던 18세기 당시, 이런 표류는 민간에서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해양 활동의 증가와 어업 및 교역의 활성화로 나라마다 빈번한 표류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의 구조와 송환 과정에서 외교적 관계가 부각되었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적인 기록은 많이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 작업은 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탐라문견록』의 가치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당시 조선 조정의 업무는 국제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로 청나라 관리와 쓸데없는 실갱이를 벌인다는지, 표류민들을 태워준 중국 상인들을 육로로 돌려보낸다는지 등등 자신만 생각하는 외교적 미숙함이 곳곳에 노출된다. 특히 국교 관계가 없던 안남국이 인도적 견지에서 표류민들을 회송했을 때에도, 뿌리 깊은 사대주의 사상 때문인지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표류민들은 예외 없이 제주인임을 숨기고 전라도나 경상도를 고향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데, 정민(2008: 29)은 “이는 1612년 제주로 표착해 온 류큐국 태자가 탄 상선을 제주 목사 이기빈과 판관 문희현이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 사건 여파 때문이었다. 이후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외국에 표류하여 제주도민임이 밝혀지면 지난 날 사건 때문에 무조건 죽인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726년 류큐에 표류한 김일남, 부차웅의 기록을 보면, 제주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행 중 한 명이 짐속에 있던 은 껌짝을 훔치다 발각되었으나, 형벌을 써서 죄를 다스리지 않고, 다만 그 죄상을 기록하기만 했다. 이들은 거의 3년을 류큐와 중국에서 지내다 귀국했는데, 류큐에 대한 짧은 민속지적 관찰 기록을 남겼다.

류큐국 태자 이야기는 이중환의 『택리지』에 실려 있고,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언급이 나온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었다면 조선 조정은 류큐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잘못 처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심경호, 2011: 385-387). 여기에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류하여 13년 넘게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하여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던 사건들을 보건대, 당시 조선 조정은 국제적인 외교 문제는 그리 신통치 않았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사뭇 일처리가 다르다. 일본에서는 일단 현지인에 의해 표류 선박이 구조되면 1640년대 후반에 정비된 도쿠가와 막부의 송환 절차에 따라 모두 나가사키로 보내졌다. 이후 이들은 다시 쓰시마 섬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다시 절차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조선 표류민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는 대부분 우호적이었다. 보통 송환까지는 5~6개월이 걸렸는데, 막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매일 일정량의 식량이 제공되었다. 그들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의 후예를 통사로 고용해 이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하였다.

『탐라문견록』에 의하면, 제보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경우는 탐험, 모험 등은 없고, 교통 혹은 장사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표류 시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필담을 통해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은 한문 문화권에 속했고,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였으므로, 한문을 통한 필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송환은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보내지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 때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의 경우, 송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대만이나 류큐, 안남 등지의 낮은 풍속과 일본인들의 생활상 등 표류민들의 다양한 해외 체험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을 터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분적인 관찰기 내용은 전해진다.

III. 『탐라문견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

여기서는 『탐라문견록』에 나타나는 인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타자 인식, 관계 인식, 자아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충격이나 이국 풍물에 대한 호기심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문화에 대한 적극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물론 시대의 한계가 제일 중요하겠으나, 인식 주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 서양인들의 동양 인식은 이와 뚜렷이 구분된다. 『로빈슨 크루소』는 서구 문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허구적 창작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의 1704년 체험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다. 항해 탐험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던 1719년에 나온 이 소설은 영국 제국주의를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계몽기의 신채호는 “『로빈슨 표류기』와 같은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겨서 국민의 모험심을 격려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해양 문화적 성격이 탐험이나 모험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물론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제국주의에 대한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한창훈, 2011).

이러한 모험담이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 후기 표해록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음이 틀림없다.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관계는 식민지인을 문명화시켜 노예로 삼는다는 당시의 식민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 프라이데이가 본래 이름을 잃고 지배자에 의해 새로운 이름을 얻음과 동시에 로빈슨 크루소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인’으로 행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오직 절대 충성만이 존재한다. 문명화한 원주민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유럽인들의 환상은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물론 관점을 바꾸어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은 『파리대왕』이 나온 지 23년 뒤인 1967년 프랑스의 미셸 투르니에가 쓴 것이다. 방드르디란 프라이데이의 불어식 이름으로 이 소설이 원주민 노예 프라이데이의 시각에서 쓰여졌음을 암시한다. 그는 크루소와 반대되는 순수를 상징하여 디포식 서양문화를 무너뜨리고 태양도시를 찾아간다는 식으로 결말이 나지만, 기존 발상은 역시 로빈슨 크루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1. 타자 인식

대만이나 류쿠, 안남 등지의 낯선 풍속과 일본인들의 생활상 등 당시 표류민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전하고 있다. 특히 1726년 북포 백성 김일남과 부차웅이 류쿠에 표류했던 기록은 특히 풍속이나 제도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여, 마치 현대 인류학의 참여 관찰지를 읽는 듯하다. 표류의 성격상 도서지역이나 남방 지역이 많아, 상당히 이국적인 취향과 정취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기록을 뽑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①: 양식과 반찬을 주지 않아서 사방으로 나가 구걸했다. 맞아들여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전에 있던 곳과 똑같았다. 대개 그 나라의 풍속이 그러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온 고을을 두루 다녀 먼 데까지 다 가 보았다. 시장과 가게의 위치도 흰히 꿰게 되었고, 풍속과 언어도 대략 이해하게 되었다. 땅은 토질이 비옥하고 논이 많았다. 그곳 백성은 남자가 셋이면 여자가 다섯이었다. 날씨가 늘 따뜻해서 소매가 넓은 홀적삼만 입고 바지는 안 입었다. 다만 작은 비단으로 앞뒤를 가렸을 뿐이었다. 머리는 풀어헤친 채 맨발로 다녔다. 남자는 천하고 여자가 높았다. 일 년에 누에를 다섯 번 치고, 벼는 3모작을 했다.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여 열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었다(안남).

1-②: 대저 대만 땅은 기후가 몹시 더워서 11월인데도 사람들은 홑옷만 입는다. 하지만 여름에도 더 더워지지는 않는다. 4~5월에 벼를 뿌려 가을이 되어 수확하는 것을 추미라고 한다. 9~10월에 또 씨를 뿌려서 겨우내 길러 3~4월에 수확하는 것은 계미라 부른다. 누에는 치지 않고 목면이 있을 뿐이다. 사탕수수가 아주 많으며, 줄기와 잎이 사탕 같다. 길이가 몇 자씩 되는데, 뿌리가 나오고 열매는 없다. 사람들이 베어다가 단으로 묶는다. 커다란 소거 멧돼지로 놀러 가서 즙을 취해술에다 졸이면 소금 같은 것이 영긴다. 사탕수수 줄기가 흰 것은 설탕과 사탕이 되고, 붉은 것은 흑설탕이 된다. 후추는 처음 심어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 가는 곳마다 있어서 값이 아주 싸다. 조금만 서리 기운이 있어도 바로 죽기 때문에 이곳 외에 절강과 복건 등지에는 없다(대만).

1-③: 하루는 관소에 있는데 소록국(인도네시아) 사신이 류쿠 사신과 함께 우

리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 부사가 뜰에 나누어 서서 예를 갖추고는 교의 위에 앉았다. 소록국의 사신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소매가 몹시 넓고 옷자락은 땅에 끌렸으며, 앞가슴에 둥근 구슬을 매달아 옷에 묶어 놓았다. 머리를 밀었는데, 몇 치가량만 남겨두어 이마를 덮었다. 금관을 쓴 모습이 마치 부처님 머리의 소라상투 같았다. 이는 옷칠한 듯 검었고, 얼굴에 때가 많았다. 부리는 하인 세 명이 뒤를 따르는데, 모두 두건으로 머리를 묶었다. 목면으로 만든 의복에 채색 꽃을 섞어서 수놓아, 어지러이 번쩍이며 사람을 비추었다(류쿠).

이런 기록의 특징은 특별한 가치 판단이 개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비교적 사실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다. 특히 1-③의 경우에는, 문화적 우위 등의 평가가 있을 법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객관적으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용된 안남국이나 대만, 류쿠 등은 당시 조선보다는 문화적으로 뒤진 나라들로 인식되었는데, 그들의 풍속이나 의식주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에서 기록도 대단히 상세하고 많은 관심을 보인 나라가 바로 류쿠다. 류쿠는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현으로 되어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독립국이었다. 이들은 진공을 이용해 무역을 하고, 조선, 일본,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중계무역으로 번창하였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사실상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류쿠를 독립국으로 유지시키며, 중국 무역의 창구로 활용했다고 한다(심경호, 2011). 그러나 결국 1872년 류쿠 왕국이 번이 되어 일본에 예속되었다. 『탐라문견록』에는 일본과는 변별되는 류쿠의 풍속이나 제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다.

2. 관계 인식

류쿠 태자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탐라문견록』

에는 엉뚱하게 안남국 기록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왜 이런 인식의 혼란이 일어난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우선 2-①의 자료를 제시하고, 인식의 혼란상을 지적해 두곤 한다.

2-①: 언덕 가의 훌륭한 집은 안남국 회안군 명덕부의 관아였다. 검은색 옷을 걸친 한 관원이 말총 모자를 쓰고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양옆에 있는 시자의 복색도 대부분 같았다. 그가 우리를 뜰 아래로 부르더니 글로 써서 사는 곳과 표류하여 이곳에 이른 정황을 물었다. 또 글로 써서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나라 태자가 일찍이 조선 사람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니 너희에게 보복하여 태자의 원수를 갚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 글을 차례로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목을 놓아 울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부인이 패옥을 쟁그랑대며 안에서 나왔다. 행동거지가 단아하고, 기이한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부인이 글을 써서 보여주며 말했다. “울지 마라. 우리나라는 본래 인명을 살해하는 일이 없으니 마음을 놓아라. 머물려면 머물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안남).”

2-②: 그가 마패를 보더니 괴이쩍어했다. 정의현감이 도입한 뒤에 상사의 마패가 배에 있었던 것이다. 그가 물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마패를 지녔는가?” 우리가 대답했다. “관사에 있었던 까닭에 지닌 것일 뿐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마패 가운데 어찌서 명나라 때 쓰던 천계 연호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대답했다. “그 당시에 주조한 것일 뿐입니다.” 그 관원은 의심하면서 끝내 석연치 않아하다가 갔다(대만).

2-③: 경신년 2월에 이르러 왜인이 말했다. “너희가 표류하여 이른 일에 대한 보고서가 강호까지 알려져서, 회답하는 이문이 이제 막 도착했다. 마땅히 장기도(나가사키)로 호송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12일에 왜선에 오르니 양옆에서 에워싸고 출발했다. 북쪽을 향해 반나절쯤 가서 구지도에 이르렀다. 전처럼 파수꾼이 먹을 것을 주었다(일본).

2-④: 왜의 법이 대마도의 조선 통사 한 사람을 교대로 번을 세워 장기도에 머물러 있게 하다가, 만약 조선 사람이 표류해서 오면, 그들에게 접대케 했다. 통사가 말했다. “조선은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니 진실로 좋은 나라입니다. 하

지만 사람들이 탐욕스런 마음이 많고, 나라 법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큰 밥주발에 늦수저로 밥을 퍼서 먹으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법으로 말하면, 도주의 자리가 자손에게 전해져서 재물이 예전부터 남아돌아 넉넉하므로 백성을 침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주 편안합니다. 조선은 외관이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니, 빈한한 양반이 요행히 100리 고을의 수령이 되면 온통 자손의 먹고 살 도리에만 마음을 쏟아 과외로 징수하여 거두어 절제함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좋습니까?” 그가 조선 지도를 꺼내 보여주는데, 부산에서 서울 남대문까지 붉은 줄로 길을 그려 놓았다. 또 안팎 각 아문에 있는 관원의 숫자도 갖추어 알게 해 놓았다. 그리고 조선의 상말도 잘했다(일본).

2-②에서는 역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 정신이 빚어낸 외교적 난맥상의 한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를 포함한 조선의 대명 의리 외교 정책은 실제 교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로 작용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2-③에서는 일본에서 당시 표류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일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일본은 조선에 비해 행정적 처리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단 조선으로의 직접 송환이 아니고 중국 측 청을 거쳐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나가사키 항에서 중국 상선을 통해 중국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므로, 시일이나 행정적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당시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문제 처리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자료다.

2-④는 대단히 특이한 자료다. 일반적으로 『탐라문견록』에는 자국 즉 조선의 문화적 우위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자료들이 주를 이루는데, 비록 통사의 입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조선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보이는 부분이다.

3. 자아 인식

당시에는 망한 왕조인 명에 대한 의식에 정반대되는 의식은 일본 쪽으로 작용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경험도 한몫 했지만,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은 명확한 것이었고, 주로 조선 사람이나 그 후예들로 구성된 일본의 통사들도 같은 의식을 공유했음을 수많은 자료에서 읽어낼 수 있다.

3-①: 작은 배로 어딘지 모를 곳에 통보하니, 한참 만에 통사라는 자가 배로 왔다. 능히 우리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기뻐서 마치 옛 친구라도 만난 것 같았다. 통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대는 우리말을 배워서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 우리나라 사람으로 표류해왔다가 이곳에서 사는 것인가?” “내 할아버지는 본래 경상도에 거주하던 백성이었다. 임진년 난리 때 포로로 왔다.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주 많아 한곳에서 함께 살았다. 도망가 돌아갈까 봐 염려하여 나가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도자기 빚는 것만 허락하여 먹고 살게 했다. 마을 이름은 웅점이라 한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등 3대가 고향을 그리며 돌아가고픈 마음을 어찌 잠시라도 잊었겠는가? 다만 법으로 엄하게 금하는지라 생각만 있지 이루지는 못했다. 일생토록 애통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지금 까지 조선말이 전수된 것은 온 마을이 말을 바꾸지 않았고, 제사 때는 조선의 의복을 입고, 평소에도 망건과 상투, 패랭이를 하여 옛 습속을 따랐기 때문이다. 왜도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

3-②: 그들이 와서 표류하게 된 정황을 물어보기에 대답해 주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느냐?” 통사가 둘 다 구슬 퍼하며 말했다. “우리의 먼 조상은 모두 조선사람입니다. 임진년에 포로로 잡혀 와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살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손이 지금은 수천 호에 이릅니다. 선대로부터 서로 전하여 집 안에서는 조선말을 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능히 잘합지요.” 하루는 통사촌에 사는 사람이 와서 말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선인이 표류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진실로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하는지라 어찌해볼 수가 없어, 저 혼자만 왔 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두루 절을 하며 기뻐 사모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보는 듯했다(일본).

3-③: 하루는 통사가 병풍 안쪽에 앉아서 막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낫그릇, 숟가락, 밥사발 등의 그릇이 모두 우리나라의 제도나 모양과 같았다. 이에 웃으며 말했다. “상관계선 어찌 물래 만드셨소?” 통사 또한 웃으며 말했다. “일본이 비록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그릇과 의복이 쓰기에 간편하고 몸에 맞기로는 어찌 조선의 제도보다 나을 수 있겠소.” 그러면서 장롱 속에서 망건과 도포, 철릭과 가죽신 따위를 꺼내 죽 늘어놓고 보여주며 말했다. “조선은 예의가 잘 갖추어져 있소. 이러한 의관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일본).”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통사들의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 의식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이룬다. 이는 역으로 일본을 비롯한 타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풍속 자체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역시 역사적 관계에서 기인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잔존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일본의 관현이며, 생활의 뿌리도 조선이 아닌 일본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이들의 자아 인식이 구체적인 상황과는 유리된 조건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통사들의 의식이 이런 상황이니, 표류자들의 의식이 어떠했는가하는 점은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적 인식은 타자와의 건전한 관계를 맺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온다. 때문에 체류 기간 중 다른 나라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IV.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론의 문화적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탐라문견록』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조선 후기 제주 백성들의 동아시아 표류 체험과 그를 통해 생성된 타자 인식

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스케치 하였다. 이에서 드러난 것은 역시 제주인이라고 하는 주체 인식, 그리고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 동아시아에 대한 타자 인식이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조망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것의 문화적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학문적으로 제주학이라는 분야는 성립 가능하며, 그 대상은 제주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된다고 본다. 이에는 공식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제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탐라'로 표현되는 과거의 모습도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일단,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 분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의 지역 연구 경향에 따르면,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경일, 1998)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한 논문을 통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이 과거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도 지역의 조사연구 성과를 호남학에 포함시키려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염미경·한석지, 2007), 지역학에서 그 대상은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식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제주학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상과 인식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며, 호남학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전경수도 이런 시각에서, '탐라'와 '제주'를 맥락에

맞추어 같이 사용하거나, ‘류쿠’와 ‘오끼나와’를 혼용하기도 한다(전경수, 2011).

제주학의 경우, 그것의 정립이 분명해지려면 연구 방법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제주라는 지역으로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그것에 접근하는 연구 방법도 다양해 질수 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에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정립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전제는 논리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것이다.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물론 제주라는 대상을 한정하고 그것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혹은 통합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제주라는 학문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 하여 무한한 예찬론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 연구는, 그 대상의 특성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

한 양상을 띤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문제도 있다. 필자는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비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인식과 방법론을 구별해서 논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논의가 더 정치하다. 여기서는 이를 다 다룰 여유가 없기에, 제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탐라문견록』은 18세기 제주와 동아시아라는 관계망을 살피는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구체적인 나라는 일본, 류큐, 안남, 대만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당시 조선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명이나 청 등 주로 중국 대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이런 해류를 따라 형성된 해양 국가들과의 외교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탐라문견록』의 화자들은 표류 혹은 표착이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르게 대단히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한편으로 과잉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특히 관계 인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제주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슬픔, 원망, 분노, 두려움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속에서도, 예를 중요시 여기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는 모습에서, 당시 제주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읽어 내기에 충분하다. 인간의 삶이라는 보편성을 비교를 통해 공감적으로 읽어내면서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당시 제주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조선 시대에는 표류 기행을 다룬 기록물이 상당수 나왔다. 특히 문자를 알고 있는 식자층의 경우에는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글쓴이들의 선입전이나 가치 판단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해 『탐라문견록』은 일반 백성들의 실제 경험을 말로써 표현한 것이며, 기록자 정운경이 비교적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살아나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제주인들이 동아시아를 인식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제주의 특수성이 아니라 동아시아와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그 경계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데 있다.

표류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것이 가진 해양 문화로서의 특징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된다. 『탐라문견록』 같은 해양 문학은 작품을 통해 해양 관련 경험을 그 근원에서, 또는 오히려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용성의 방향으로 굴절되어 적절히 인간의 경험이 되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뛰어 넘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최영호, 1998). 이 점에서 『탐라문견록』이 보이는 인간 특히 타인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과 공감은 적지 않은 시간의 간격을 뛰어 넘어 현대의 우리에게도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려면, 우선은 자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제주의 경우, 이런 진취성과 관계성이야 말로 해양 문화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좋은 정신문화라고 판단된다. 사실 제주가 가지는 이런 해양 문화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송성대(1998)에 의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탐라문건록』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에서부터 전해지는 자료의 실상은 제주 넓게는 조선의 경우, 그리 대외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이면적인 모습이 있으며, 해양 문화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섭 역, 2011, 한창훈 해제,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글누림.
- 김경일 편, 1998, 『지역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미셸 투르니에 저, 2003, 김화영 역,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 _____, 1998,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파루스.
- 심경호, 2011,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 염미경 · 한석지, 2007,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 타 지역학과
의 관계 모색을 위하여」, 『제주도 연구』 30, 91-123.
- 윤치부, 1994, 『한국해양문학연구』, 학문사.
- 장한철 저, 2009, 김지홍 역, 『표해록』, 지만지.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출판부.
- _____, 2010, 『탐라 ·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 _____, 2011, 『일본 열도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 정운경 저, 2008, 정민 역,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 최 부 저, 1998, 윤치부 역, 『표해록』, 박이정.
- 최영호, 1998, 「한국 해양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창훈, 2009,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Abstract

Jeju People's Recognition of East Asia in
Tanramungyeonrok and Its Implication

Han, Chang-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brief topography of Jeju people's recogni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as was grasped via their actual experiences in the 18th century with Jeong Un-gyeong's *Tanramungyeonrok* 'A Description of Jeju' as its principal material. Jeong Un-gyeong(1699~1753) came to Jeju Island along with his father, who took office as governor of Jeju. In this strange island, he unexpectedly learned that many of Jeju people had returned home after drifting even some far distant Vietnam land as well as Japan and Taiwan, and hence interviewed each one of them to make records of their experiences. What was resulted from the collection of such records was *Tanramungyeonrok*

The contents of *Tanramungyeonrok* are not uniform, but it has comparatively detailed descriptions of dates of drifting, points of events, processes of return. It is unique to the effect that Jeong tried to write what the informants remembered as carefully in detail as possible. In the 18th century, when international contacts were extremely limited, such drift cases were the only route to common people's experiencing foreign cultures. There occurred frequent events of drift across various countries due to increase in oceanic

*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ctivities and activation of fishing and trade, and hence diplomatic concern was prominent in the course of the salvation of drifters. In the case of Korea, compared with Japan, though there were lots of individual records, systematic compilation was not yet attained. The value of *Tamramungyeonrok* lies in this fact.

According to *Tamramungyeonrok*, Jeju people were involved in trading or traffic not in expedition and adventure when they proceeded to the sea. They generally communicated in writing when they encountered foreigners due to drifting. At that time, as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 China, Japan, and Vietnam, belonged to the culture of Chinese classic literature and enforced the system of national examination, communication in writing was not a big problem. However, most of returning processes were through China to Joseon, in which case the use of Ming's chronological title was a big trouble. In particular, Joseon was not equipped with an administrative system of return. Records of various overseas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have been transmitted including strange customs in Taiwan, Ryukyu, Vietnam etc., and Japanese life aspects.

Key Words: Jeong Un-gyeong's *Tamramungyeonrok*, Recogni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Culture of Chinese Classic Literature, Overseas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교신: 한창훈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hanch@jbnu.ac.kr)

논문투고일 2012. 6. 30.

수정완료일 2012. 8. 13.

게재확정일 2012. 8. 17.